

향후 경제전망과 주류산업

1. 최근 경제현황



온 기 운

〈산업연구원 산업동향분석실장〉

경기회복세 확산

외환위기 이후 침체가 심화되던 국내경제는 작년 하반기중에 저점을 지나 회복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의 경기국면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작년 9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향후의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작년 7월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경기상승 국면의 지속을 예견케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항은 최근 경기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지만 회복세의 내용에는 실제로 경기가 호전되어서 나타나는 부분 외에 작년의 저조했던 수치에 대한 반등 부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아직 절대적인 경제수준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금년 1/4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당초 대부분 전망기관들이 예상한 것보다 높은 4.6%를 기록하였다. 민간소비는 6.3% 증가하여 외환위기 이전(1997년 1/4분기) 수준의 95%정도까지 회복되었다. 설비투자도 금년 1/4분기에는 12.9%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수준은 아직 외환위기 이전의 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건설투자는 아직 마이너스 증가(1/4분기중 -13.7%)

■ 目 次 ■

1. 최근 경제현황
2. 경제전망
3. 국내경제와 주류산업

외환위기 이전(97년 1/4분기)과 99년 1/4분기 비교

단위:10억원, %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재화·용역 수출	재화·용역 수입
97년 1/4분기(A)	56,409	14,537	17,509	32,848	34,507
99년 1/4분기(B)	53,992(74.2)	10,136(27.1)	14,225(-52.7)	46,429(119.7)	32,036(-161.1)
B/A	95.7	69.7	81.2	141.3	92.8

주 : ()속의 수치는 성장에 대한 기여율, 재고감소둔화에 의한 성장기여율은 111.3%

가 이어지고 있고, 외환위기 이전의 8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즉 현재의 경제수준 자체는 외환위기 이전보다 낮은 상태이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체감경기는 아직 본격 회복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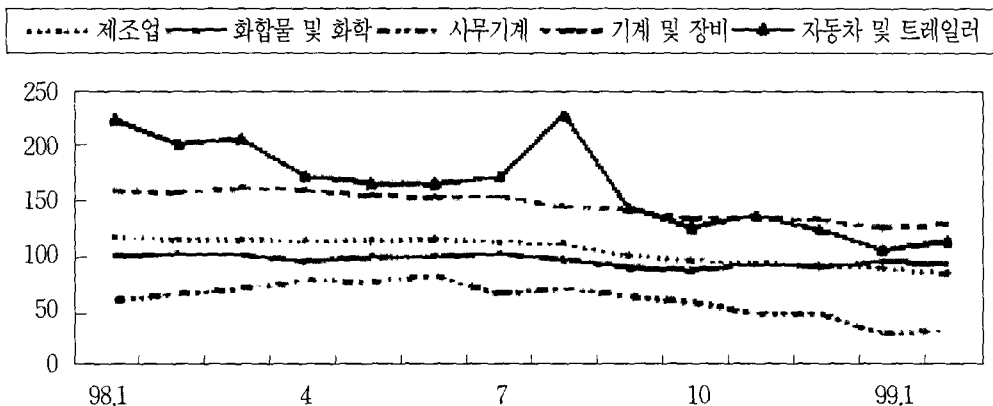
재고의 급격한 변동

작년의 성장을 급락 과정에서 나타난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재고의 급격한 감소로 재고의 마이너스 성장기여도가 다른 때에 비하여 매우 크게 나타났다는 데 있다.

작년에는 생산자제품 재고, 유통재고, 원자재 재고 등 재고가 사상 유례없이 큰 폭(국민계정상 28조원)으로 감소하여 실질 GDP 성장

률 -5.8%중 재고부분의 기여도가 -5.6%에 달하였다. 그리고 실질GDP에서 차지하는 재고투자의 비중도 -7.0%를 기록하였다. 말하자면 작년은 기업들이 내수 및 수출부진에다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부담 증가, 신용경색 등 때문에 기업들이 유통재고와 원자재재고, 생산자제품재고 등을 의도적으로 크게 줄였던 한해였다. 그러나 금년들어서는 재고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 금년 1/4분기중 재고감소폭은 약 4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9조원보다 감소폭이 5조원 줄어들었다. 이는 1/4분기 성장에 5.1% 포인트 기여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금년에는 재고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서 성장률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품목의 재고율 추이



재고조정 상황을 보기 위해 재고지수를 출하지수로 나눈 재고율지수를 보면 금년 4월 현재 제조업전체로 78.5로서 7개월 연속 100 이하를 기록하여 재고조정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고율을 품목별로 보면 대부분의 품목에서 재고율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중 자동차산업의 재고율이 금년 들어 내수 및 수출 호조에 힘입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고, 컴퓨터 등 사무기계의 경우는 작년초부터 100을 훨씬 하회하고 있다.

선순환구조 정착

외환위기 직후 한 때 폭등하였던 금리가 환율안정 등으로 작년 가을 이후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됨으로써 우리경제의 양대 축인 실물 부문과 금융부문간의 선순환구조 정착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경제는 실물부문에서 기업들의 부도나 도산이 증가하고, 이로써 자산매각 확대와 자산가치 하락 등의 현상이 심화되어 이른바 '자산디플레이'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었었다. 그러나 작년 가을 이후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 즉, 금리하락으로 주가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부동산 가격도 제한적이기는 하나 회복조짐을 보이는 등 자산가치의 상승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자산가치 상승과 이에 따른 자산소득 증가는 민간소비를 촉진시켜 경제회복을 보다 원

활하게 하며,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 촉진,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및 신용경색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수출부진

금년 1 5월 중 수출은 534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8% 감소하여 아직 부진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품목별 수출을 보면 반도체, 산업용전자가 호황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제품이 작년에 비해 소폭 증가에 그치거나 오히려 감소하였다. 반도체는 해외수요 증가에 따른 물량 증가 및 가격 안정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용전자도 LCD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은 선진국의 수입규제와 세계 수요의 둔화, 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로 부진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미국경제의 고성장 지속(1/4분기 4.1% 성장)과 아시아 경제의 부분회복으로 미국과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은 순조로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경기둔화를 보이고 있는 EU지역에 대한 수출신장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고, 외환위기 여파에 시달리는 동구, 중남미 등에 대한 수출도 울들어 급감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수출단가를 보면 내수침체에 시달리는 개도국들의 저가 물량공세로 인해 원화절상속에서도 하락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

주요 품목별 수출증가율(%)

	반도체	산 전	자동차	일반기계	선 박	철 강	석유화학	섬 유	가 전
1998	-2.4	-4.8	-6.9	-0.3	22.9	17.2	-2.6	-9.9	-18.0
99(1~3)	13.4	19.0	0.9	2.3	1.7	-23.1	-11.8	-10.0	-3.8

주요 지역별 수출증가율(%)

	미 국	ASEAN	일 본	E U	중 국	중남미	중 동	동 구
1998	5.5	-24.8	-17.2	7.7	-12.0	2.3	29.0	-22.5
99(1~3)	11.9	15.7	6.2	1.1	-1.3	-5.5	-22.0	-42.7

여진다. 이는 결국 수출에 따른 기업의 채산성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금년도 우리나라 대미, 대아시아 수출은 비교적 호조를 보일 것이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수입규제 강화와 원화강세 기조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 등이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 및 금융시장 안정

올 들어 소비자물가는 유가상승과 농수축산물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요금 안정과 소비위축 등으로 안정세가 유지되어 5월까지 작년말 대비 0.6% 상승하는데 그쳤다. 5월에는 소비자물가가 전월에 비하여 오히려 0.2%가 하락하였다. 작년의 경우 5월까지 소비자물가가 전년말 대비 3.8%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물가가 크게 안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산자물가의 경우도 원화환율의 안정과 국제유가를 제외한 원자재 가격의 안정, 임금 및 금리 등 생산비용의 하락 등으로 올해 5월까지 작년말 대비 0.8% 하락하였다.

한편, 외환위기 직후 급등했던 금리는 전반적인 자금수요 부진과 원화환율의 하향안정화에 따라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 금년 6월초 현재 외환위기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회사채수익률의 경우 1997년 12월 평균 24.3%를 나타냈으나 점차 하락하여 작년 11월에는 10%대 밑으로 떨어졌으며, 금년 4월

20일에는 사상 최저 수준인 7.23%를 기록하였다. 그후 금리는 금리수준 적정 논쟁 등의 영향으로 5월 15일 8.52%까지 상승하였으나 다시 하락하여 6월 7일에는 7%대로 다시 떨어졌다. 작년 1월에 평균 28.4%까지 상승했던 콜금리도 동년 8월에 10%대 밑으로 떨어진 이래 금년 6월초 현재 4%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다.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7년 평균 949.9원에서 작년 평균 1,396.8원으로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지속과 외국인투자자금 유입 증가,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따른 외화유입 증가 등으로 최근 1,180원대를 기록하는 수준으로까지 하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앞으로도 달러공급 우위로 하락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 한동안 문제시되었던 신용경색 현상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자산가치 상승 등에 따라 금년 들어 상당부분 해소되어 가는 상태에 있다. 이는 금융기관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대출비중이 작년 9월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에서 알 수 있다. 일반은행의 자산 대비 대출 비중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10월 48.4%에서 작년 9월에 36.6%까지 하락하였으나, 작년 12월에는 38.0%로 소폭 상승하였다.

고용회복세

금년 2월에는 실업률이 8.7%까지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 하락하여 4월에는 7.2%를 기록

하고 있다. 실업자수도 2월에는 178만명을 기록하였으나 4월에는 155만명으로 줄어들었다. 노동부 [노동통계조사]에서도 휴·폐업 사업장을 제외한 상용근로자 10명 이상의 기존사업장의 경우 금년들어 신규채용자수가 퇴직이나 해고자수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나 고용사정이 개선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사정 개선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발생 요인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의 회복세 확산에 따른 고용여력 증가와 정부의 지원에 힘입은 중소기업 창업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도 기업의 구조조정에 의해서는 실업자가 늘어날 것이나 경기회복세 확산에 의해서는 실업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후자가 전자보다 우세하여 실업자는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취업자 중 일용직이나 임시직의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어 고용구조는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2. 경제전망

금년 6%에 가까운 성장

금년에는 작년에 워낙 경제지표들이 나뻐던 것에 대한 수치상의 반등과 재고요인으로 성장률이 6%가까이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는 임금상승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와 추가상승 등에 따른 자산소득 증가의 영향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여겨진다. 투자는 설비투자의 경우 작년에 투자가 워낙 이루어지지 않는데 따른 영향으로 증가세를 나타낼 것이나 생산능력 증가를 위한 투자보다는 합리화 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는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이 플러스 증가로 반전된 것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

이나 연간 건설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에 머물 것으로 여겨진다. 수출은 하반기에는 플러스 증가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간 수출증가율은 원화절상과 외국의 수입규제 강화 등으로 1%를 다소 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입은 17% 정도로 대폭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폭을 200억달러 수준으로까지 축소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금리는 회사채 수익률의 경우 당분간 기업의 자금수요 부진과 이에 따른 회사채 발행물량 축소로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9월 이후에는 경기회복세 확산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로 상승세로 돌아서 연말에 9%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흑자와 외국인 직접투자 및 증권투자 자금유입으로 외화공급이 우위를 나타내 대체로 절상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을 유지할 경우 연말에 원/달러 환율은 1,160원 정도까지 하락할 것으로 여겨진다.

내년에는 성장률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내년에는 수치상의 반등과 재고요인이 거의 사라질 것이고 따라서 금년과 같이 성장률이 크게 끌어올리는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시 말해서 내년도에 소비나 투자 그리고 수출이 크게 호전되지 않는한 성장률이 금년보다 오히려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소비증가세는 내년도에 이어져 성장을 떠받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비만 가지고 성장을 지탱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는 소비이상으로 투자와 수출이 중요하다.

설비투자는 금년 1분기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내용이 문제이다. 투자

의 상당부분이 생산능력 증가와 관련이 적은 운수장비나 컴퓨터 교체에 따른 투자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거 90년대 중반까지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던 생산능력 증가를 위한 투자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재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4%대로 적정수준을 밑돌고 있고, 중화학업종을 중심으로 설비과잉 상태가 이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건설 투자는 금년 하반기에 회복세로 돌아서기는 하겠으나 정부예산 제약에 따른 토목부문의 투자 한계와 주거용 건축수요의 한계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수출의 경우 최근의 특징은 물량증가율이 매우 낮아진 반면 수출단가 하락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의 경우는 수출물량이 17% 정도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금년들어서는 증가율이 한자리수에 머무르고 있으며, 달러 표시 수출단가는 원화절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수출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반면에 국내 경기 회복에 따라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 현상이 내년까지 이어져 무역수지 흑자 축소와 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에는 물가상승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금년에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하여 경기가 회복됨으로써 수요견인적 인플레이 압력이 증가할 뿐 아니라, 임금상승 등으로 공급측면에서의 인플레이 압력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금리는 자금수요 증가로 금년보다 올라갈 것으로 보이며, 환율은 외화공급 초과로 절상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도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하거나 미국경기가 급속히 둔화될 경우, 또 엔화약세가 심화되거나 중국위안화가 절하될 경우 우리경제는 적지않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따

라서 정부나 기업,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금년의 빠른 성장세 회복에 도취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내년 이후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국내경제와 주류산업

주류 내수 회복추세

IMF자금지원 이후 심화되는 경기침체로 작년에는 주류에 대한 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실질임금 감소, 실업증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내수경기가 위축되는 가운데 생필품이라고는 할 수 없는 주류에 대한 소비를 국민들이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년들어 주류소비는 전반적인 소비회복세와 맞추어 다소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년들어 민간소비는 내구소비재에 대한 소비와 더불어 소득이 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이른바 '선택적 소비'를 중심으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외식이나 여행, 오락 등에 대한 지출이 그것이다. 금년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222만 2,0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0.5%감소하였다. 그런데 가계지출은 172만 5,0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9%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서 소득은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소비는 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로 가계의 흑자는 49만 6,9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4% 감소하였다. 가계에서 차지하는 소비지출, 즉 평균소비성향은 작년 1/4분기 71.5%에서 금년 2/4분기 74.8%로 3.3% 포인트나 상승하였다. 이러한 도시근로자의 가계수지동향은 소비자들의 소비지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주류소비를 보면 1/4분기중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감소폭이 줄어들거나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고가인 위스키와 맥주는 판매량감소폭이 줄고 대중주인 소주의 판매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위스키는 1/4분기중 91만 상자가 판매되어 작년 동기의 110만상자에 비하여 약 20% 감소하였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작년 1/4분기 판매량이 97년 같은 기간보다 50% 급감한데 비하여 감소폭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소주의 경우 판매량은 금년 1/4분기중 2,107만 상자로 작년 같은 기간의 2,064만 상자에 비하여 2% 늘어났다. 맥주는 같은 기간중 2,985만 상자가 팔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2% 감소에 그치고 있다. 작년 같은 기간중 맥주의 판매량은 15%나 줄어든 바 있다. 생맥주 판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하반기에도 소비회복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주류소비량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주류소비 증가세에 따라 대부분 국내 주류업체들의 경영실적도 작년의 부진에서 벗어나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리하락으로 금융비용이 절감되는데다 기업구조조정도 상당히 진전되어 매출증가와 함께 경영실적 개선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 증가추세

작년에는 경기침체로 주류수입도 크게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주류수입은 1990년에 7,000만 달러를 다소 넘는 수준이었으나, 97년에는 이의 4배에 해당하는 2억 8,000만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발생 이후인 작년에는 주류수입이 급격히 줄어 연간 주류수입액이 전년보다 40.6%나 감소한 1억 6,578만 달러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주류 종류별로 보면 97년에 연간 518만 달러를 기록했던 맥주수입이 작년에는 전년에 비해 83.7%나 감소한 84만 2,000달러를 기록했으며, 포도주 수입도 전년보다 71.5% 감소한 6,49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 주류수입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위스키의 경우 작년 1억 966만달러로 전년보다 42.5% 감소하였다.

이러한 주류 수입감소율은 작년 한해동안 우리나라 전체 수입감소율 35.5%보다 큰 것이었다. 주류수입의 감소율이 전체 수입의 감소율보다 컸던 것은 IMF체제 이후 가계의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실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불요불

주류 수입실적

단위:천달러, %

	1990	1994	1996	1997	1998	1999. 1~4월
주류전체	70,406(16.5)	126,935(70.9)	261,447(36.5)	279,113(6.8)	165,782(-40.6)	49,320(-10.1)
맥 주	1,119(-23.9)	1,138(-31.5)	3,379(32.5)	5,181(53.3)	842(-83.7)	394(265.7)
포 도 주	4,888(56.9)	8,103(38.4)	16,406(20.4)	22,809(39.0)	6,490(-71.5)	3,147(34.2)
위 스 키	34,438(26.9)	75,991(68.4)	186,919(53.6)	190,546(1.9)	109,655(-42.5)	30,851(-15.5)

주: ()속의 수치는 전년동기비 증가율

급한 소비는 가급적 억제하려는 소비패턴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년들어 주류수입은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금년들어 4월까지 맥주의 수입은 39만 4,000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5.7%나 증가하였다. 포도주도 34.2% 증가한 314만 7,000달러를 기록하였다. 고급주인 위스키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5% 감소한 3,085만달러를 기록하였으나 감소폭은 많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류전체의 수입은 금년 들어 4월까지 4,932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1% 감소한 수준이나, 감소율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상당폭 축소되었다.

주세조정에 따른 영향 클듯

WTO는 우리나라의 위스키 차별과세에 대한 관세무역협정(GATT)의 제소에 대하여 금년 1월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을 같게 하도록 하는 판정을 내린바 있다. 최근에는 WTO가 주세분쟁과 관련한 상소심 판정결과를 우리측이 내년 1월말까지 이행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35%인 소주의 세율을 위스키 세율인 100%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

하게 검토하고 있다. 애당초 위스키의 세율을 소주수준으로 낮추도록 소비자와 업계가 요구하였다.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객럼이 5월중순에 공동으로 실시한 주세법 개정 관련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대학교수, 경제관료, 정계·언론계 및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응답자중 57.0%가 '주세를 전반적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높여야 한다'가 19.5%, '현행유지'가 15.5%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소주세율의 인상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주세가 정부의 세입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주세율을 100%로 올리게 되면 현재 360ml짜리 소주한병의 소비자 가격이 700원에서 1,000원으로 높아진다.

현재 135%로 되어 있는 맥주의 세율에 대해서는 그 인하여부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업계는 75% 수준으로 낮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어떻든 앞으로 소주의 주세가 인상되면 소주 소비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맥주의 소비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주류와 국내주류간의 가격차가 좁혀져 외국주의 수입은 지금보다도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Time is the great physician.

시간은 위대한 의사이다.(괴로움도 아픔도 세월따라 잊혀지므로).

- Benjamin Disraeli -